

인문대

제32호 소식

College of Humanities Newsletter

2022년
가을

발행처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주 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장전동)
발행일 2022년 10월 전 화 051-510-1501
발행인 이준규(학장) 편집인 이창희(부학장)
디자인/제작 예소 전 화 051-582-1226

Contents 02 | 미리내 단상 03 | 교수동정 / 인문대 소식 04 | 동문소식 / 학과·연구소 소식 08 | 시간소개



2022년 국립대학육성사업 동아시아지식학 『효원인문주간』 첫 개최

융합과 통섭의 글로벌 지식기반사회에서 인문학적 상상력과 소통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 가는 가운데, 인문대학 국립대학육성사업은 올해 처음 「인문주간」 행사를 마련해 다채로운 강연과 연구 성과 공유·확산에 나섰다. 1학기 「효원인문주간」에서는 인문관 1층에서 「인문관-인문대학-인문학」을 주제로 사진·저서 등의 상시 전시 및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지난 4년에 걸친 성과를 담은

동아시아지식학 총서 및 연구 성과물, 영상 콘텐츠 수상작 등을 함께 선보였다. 인문대가 추진하고 있는 '동아시아지식학 구축 및 학술 역량 강화 사업'의 1주기 성과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2주기 사업의 융·복합적 비전 확보와 초석 마련을 위해 추진된 「효원인문주간」은 2학기(22.10.24~11.11.)에도 열릴 예정이다.





아름다운 부산과 새 시대의 인문학

중어중문학과 교수 윤순일

‘코로나’라는 단어가 세상을 지배한 지 어언 2년이 되어가는 2022년의 봄, 나는 부산대 중어중문학과에 임용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오랜 시간 기대했던 부인의 회임(懷妊)도 그 무렵 함께 있었으니, 나에게 부산은 기회와 희망의 땅임이 틀림없을 터이다. 전셋집을 구하러 내려오는 길에서 공교롭게도 부산 방향으로 무지개 하나가 찬연히 드리워졌는데, 마치 내가 상서로운 기운이 일어나는 동남(東南)의 땅으로 달려가는 어느 무협소설의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부산은 내가 유학했던 중국의 상해(上海)와 많은 면에서 닮아 있다. 부산과 상해 모두 동남부 연해지역에 위치한 사통팔달의 제2도시로 아름답고 생동감이 넘치는 국제적인 항구도시이다. 낙동강과 수영강이 좌우에서 부산을 품고 있듯 장강과 황포강은 상해의 남북을 감싸며 유유히 흐른다. 육지, 강, 바다가 모두 한데 만나니, 자연스레 교통이 편리하고 물산이 풍부하여 상공업이 발달하였다. 사람들의 성품이 개방적이고 지역에 자부심을 느끼며 해산물을 즐기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주민에 의해 현대적인 대도시로 성장했다는 점도 비슷하다. 덕분에 도로와 주거지는 사람들이 모이는 대로 제멋대로 나 있으며, 도심은 길도 자주 막히고 고가도로와 고층건물도 많다. 역사적 아픔도 많이 닮았다.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시대, 두 도시는 외세에 강제 개항되어 이후 오랜 세월 동안 식민 수탈의 창구 신세였다. 그런 덕분인지 새로운 문물과 지식이 두 도시를 통해 대거 유입되었고(놀랍게도 부산과 상해 모두 커피의 도시이다), 해방 이후에도 부산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으로 상해는 장강삼각주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부산은 상해와 다르게 갈수록 도시의 활력을 잃는 듯하다. 아마도 수도권 집중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가 주된 원인일 것이다. 그것이

국가적이고 장기적이라는 점에서 지역 구성원들에게서는 일종의 무력감마저 느껴지곤 한다. 설상가상 유럽의 흑사병이 르네상스라는 역사적 변전을 이끌었듯 코로나는 기존의 관행들을 하나씩 무력화시키며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재촉하고 있다. 어느덧 우리에게 ‘비대면’은 생활의 일부가 되었으며, ‘플립드러닝’, ‘블렌디드러닝’ 정도의 용어들은 이제 전혀 생소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우리가 표방하는 인문학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무려 ‘문송(문과라서 죄송)’한 학문으로 취급받는 작금의 현실에서 말이다.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융합과 연결이다. 우리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그 기술들이 인간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역할을 부단히 잠식하겠지만, 혁신을 주도하는 것은 여전히 인문학적 창의력과 상상력일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인문학자들이 해야 할 일은 기술의 진보를 맥락 없이 흥내내는 것이 아니라, 인문의 본체를 잃지 않고 그 소산들을 축적하여 기술과의 연결에 밑바탕을 제공하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인문적인 것이 가장 혁신을 주도하는 셈이다. 예컨대 기계번역이 통역사를 대체하는 세상에서 어문학자가 단순히 언어기능 교육에 몰두하는 것은 다분히 시대착오적이다. 인간의 본질로 방향을 전환하여 사고의 유연성을 기르고 시각의 다양화를 유도하는 방식이 새 시대의 요구에 보다 부합한다.

더욱이 이곳 새벽별이 지역 유일의 거점국립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산대학교 인문대학이 순수 인문학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함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제 디테일을 채우는 것은 각자의 몫일 터, 나를 포함한 이곳의 인문학자 모두 새 시대에도 건승하길 바란다.

금정제의 부활: 다시 연결될 우리를 꿈꾸며

제52대 인문대학 학생회장 문연지(철학 17)



코로나 19를 거치며 2020년과 2021년도 재학생들은 대학생활을 잃었습니다. 20, 21학번에게는 원래 없었던 것이니 잃었다고 표현하기도 어려울 만큼, 수업은 물론이고 대면으로 진행되었던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해외 교 그렇게 맞닥뜨린 위기들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사회적 존재, 관계 지향적 존재인지 체득했습니다.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는 모두 코로나 이전 함께 모여 서로의 삶을 연결했던 때를 추억했으며 언젠가 다시 만나 이루게 될 사회적 상호작용을 기대해왔습니다.

새로운 연결의 희망을 안고 맞이한 202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 우리는 군중 속 고독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교정은 아직 낯설고 갑자기 생겨난 물리적, 시간적 교류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은 상대적 우울감이나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인문대학 학생회장에 출마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고민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학내에서 지속적으로 만나 학술적 교류뿐만 아니라 정서적 연결을 이뤄낼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좁게는 동아리, 학과, 더 나아가 단대 행사 속에서 모종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고민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고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1학기에 진행했던 행사를 바탕으로, 2학기에는 인문인의 축제, 금정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회대학과 함께하는 단대 대항 체육대회를 시작으로 금정제의 새로운 포문을 열겠습니다. 인문대학의 금정제와 사회대학의 문창제가 만나 마침내 빛나는 호원을 만들겠다는 포부와 결심을 안고 2학기를 준비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 정년퇴직 교수



독어독문학과
허영재

독어독문학과 허영재 교수는 1987년 3월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후학 양성 및 독문학 연구에 기여하였다. 인문대학 부학장, 대학 기획처장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학외 활동으로 한국독어독문학회 부회장, 한국독일어문학회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향후 명예교수로서 연구 활동 및 후학 양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 신입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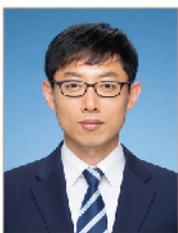
노어노문학과
황서경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러시아어 언어학 전공으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친 후, 2004년 '러시아어 조격, 생격, 여격의 의미 연구: 동사어휘의미를 기준으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러시아학술원 산하 러시아어 연구소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공부했으며,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 상명대 등에서 강의했다. 러시아어 동사 의미 그룹에 나타나는 형태-통사적 특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왔다. '러시아어에서 행위 결과의 격 실현', '러시아어 산출동사 연구: 격 의미와 상적 특성을 중심으로', '러시아어 도구 표현의 유의성: 전치사 결합, 비결합 형태를 대상으로' 등의 논문을 썼다.



사학과
윤석호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 과정을 거쳐 「정약용 경제학의 국가개혁론과 농자독전」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졸업 이후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였다. 주요 연구로는 「조선후기의 '封建' 讀法에 대한 試論 - 畿内の 통치방식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孟子』를 척도로 본 조선 후기 公田 담론의 경제학적 층차」, 「家藏本 『經世遺表』의 서지적 검토(1) - 冊題 변화 전후의 집필 과정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철학과
정대훈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데카르트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5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크리스토프 멘케 교수의 지도 아래 「주체성과 예술: 헤겔과 니체에 따른 근대의 구성」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8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에서 교육전담교원으로 재직했다. 주요 논문으로 「칸트의 존경 이론에서 주관적 전회와 존경의 절취」(2016), 「헤겔의 역사철학적 비극관」(2016), 「정신의 도야」(2018), 「선택의지의 자유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2019), 「지식의 의지 개념 분석을 중심으로 한 푸코와 니체의 사상적

관계에 대한 고찰」(2019) 등이 있다. 주요 단행본으로는 『데카르트』(2001)(역서), 『뉴레프트리뷰 3』(2011)(공역), 『근대 사회정치철학의 테제들』(2021)(공저), 『현대 영미 철학에서 헤겔로의 귀환』(2022)(공역) 등이 있다.

◆ 인문대 교수 연구년 및 장기파견

류속영	국어국문학	1년	2022. 3. 1. ~ 2023. 2. 28.
김려실	국어국문학	1년	2022. 8. 1. ~ 2023. 7. 31.
정병언	영어영문학과	1년	2022. 9. 1. ~ 2023. 8. 31.
김성진	한문학과	1년	2022. 3. 1. ~ 2023. 2. 28.
서영건	사학과	1년	2022. 3. 1. ~ 2023. 2. 28.

인문대 소식

◆ 2022학년도 2학기 학과장 명단

2022학년도 제2학기 학과 및 협동과정의 운영을 총괄하게 되는 학과장 및 협동과정 전공주임 교수는 다음과 같다.

국어국문학과장	허순우 교수 (2022. 2. 1.)
중어중문학과장	신우선 교수 (2022. 7. 1.)
일어일문학과장	류민화 교수 (2022. 3. 1.)
영어영문학과장	안소미 교수 (2022. 1.15.)
불어불문학과장	이송이 교수 (2022. 3. 1.)
독어독문학과장	서은주 교수 (2022. 2. 1.)
노어노문학과장	최동규 교수 (2022. 9. 1.)
한문학과장	정출현 교수 (2022. 3. 1.)
언어정보학과장	권순복 교수 (2022. 3. 1.)
사학과장	조원 교수 (2022. 2. 1.)
철학과장	조창오 교수 (2022. 3. 1.)
고고학과장	양은경 교수 (2022. 3. 1.)
인지과학 전공주임	권순복 교수 (2021. 3. 1.)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전공주임	김태우 교수 (2022. 3. 1.)

◆ 2021학년도 후기 박사학위 수여자 명단

- 김나영(일어일문학과) [지도교수: 류민화]
『日本書紀』における助數詞の研究
- 시미즈레이코(일어일문학과) [지도교수: 류민화]
古代日本語の「恐怖心」表記に関する研究
- 히로세 유이치(고고학과) [지도교수: 임상택]
대한해협을 둘러싼 신석기시대 교류연구
- 최경만(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임주탁]
지역문화를 활용한 한국문화 교육 방안 연구

◆故 고현철 교수 7주기 추모식 개최

「고현철교수추모사업회」(회장 이준규·인문대학장)는 17일 오전 교내 10.16기념관에서故 고현철 교수 7주기 추모식을 개최했다.

7주기를 맞아 고인의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개최된 이날 추모식은 묵념과故 고현철 교수 소개, 추모사업 경과 보고, 차정인 부산대 총장, 송기인 신부(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상임고문), 김상호 전국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김석만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부산대 교수회장) 추모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국어국문학과 학생이故 고현철 교수의 시집 『평사리 송사리』에 나오는 시(詩) ‘목공소에서’를 추모시로 낭송하고, 음악학과에서는 추모공연을 가졌다.

이날 추모식에는 전국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함께 전국국립대학교수노동조합, 부산대 민주동맹회, 부산작가회의 등에서도 함께해 고인을 추모했다.



◆국립대학육성사업

2022학년도 동아시아지식학 지식학 연구소모임 시행

인문대학에서는 학부·대학원·교원의 유기적 연계 스테디로 학과 별 <지식학 연구소모임>의 구성 및 지원을 통하여 학문 생태계 복원과 유지, 학술·연구 역량을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올해는 41개 주제 팀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과별로 선정된 팀은 <제5회 동아시아지식학 차세대 학술포럼>의 학습 내용 및 연구 성과 발표를 통해, 전공 영역을 넘어 학제 간 융합 연구와 학술교류의 자리를 마련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장학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제4회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포럼 우수사례 선정 발표

부산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5개의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인 기초·보호 학문 및 특화 학문 분야 육성·학문균형 발전사업-영역에서 인문대학의 동아시아지식학 구축을 통한 인문학 교육·연구 역량 강화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2022년 7월 19일(화) 개최된 ‘제4회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포럼’에서 그 성과에 대한 발표회를 가졌다. 발표는 동아시아 지식학 사업 소개(이준규 인문대학장), 4차년도까지의 성과(사업담당자 윤주영), 5차년도 사업에 대한 안내(이준규 인문대학장), 프로그램 참여 학생(고고학과 나상현, 무역학부 손현지)의 인터뷰 등으로 구성되었다. 인문대학은 기초·보호학문분야의 교육·연구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① 기초·보호학문분야의 학문적 역량 배양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설·운영 ② 학문 후속세대 육성과 학문 생태계 복원을 위한 인문학 탐구·연구 활동 지원 프로그램 ③ 대외교류 활성화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사학과 김인선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조교수 임용



부산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박사과정을 거쳐, 2011년 8월 부산대학교에서 「1964년 미시시피 ‘자유여름’ 인종, 성, 계급의 갈등과 소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졸업 이후에는 동대학 인문학연구소 및 여성연구소에서 전임연구원으로 재직했다. 주요 연구로는 「“흑백이 함께”에서 “흑백분리”로: 미시시피 셔머프로젝트에서 ‘백인문제’(White Problem)」, 「리오 프랭크 사건(1913~1915)과 ‘인종화된 섹슈얼리티’ - 오스카 미쇼의 <할렘 살인>(1935)을 중심으로」, 「1836년 헬렌 주윗(Helen Jewett) 사건을 통해 본 섹슈얼리티, 젠더, 계급 인식」 등이 있다.

학과·연구소 소식

◆중어중문학과

2022학년도 전공특화 비교과 PNU Major+ 『중국어회화 집중 특강』 실시

2022학년도 전공특화 비교과 PNU Major+ 사업의 일환으로 중어중문학과에서는 “중국어회화 집중 특강” 프로그램을 6월 28일~7월 14일 기간 동안 주 2회 3시간씩 진행하였다. 특강자는 중어중문학과 객원 교수 장루이 교수로, 중어중문학과 재학생 2학년~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학생들에게는 중국어로 주제와 관련된 집중 토론을 통해 중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었다. 이 프로그램은 정규학기 9월부터 12월 중에도 실시할 예정이다.



◆일어일문학과

JLPT N1급 단기 특강

일어일문학과에서는 대학혁신사업의 일환으로 7~8월에 ‘JLPT N1급 단기 특강’을 진행했다. JLPT는 일본어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인 시험으로, 공인 자격 취득을 통한 재학생들의 대외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막연했던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실력 향상을 통한 자신감 고취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신입생환영회 개최

영어영문학과는 6월 24일 송정에서 재학생과 신입생 간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2022년 신입생환영회'를 개최했다. 신입생환영회에서는 수강신청 노하우, 동아리 활동 추천 등 선배들의 학교생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를 바탕으로 신입생들의 학교생활 기반을 확충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영문학과 취업지원 특강



영어영문학과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과 졸업생을 초청하여 『영어영문학과 취업특강』을 실시하였다.

6월 23일에는 17학번 박수민 졸업생의 '공무원 특강', 7월 18일에는 14학번 광명하 졸업생의 '교원임용고시 학습법', 7월 25일에는 15학번 김준성 졸업생의 '현대자동차 취업 방법'을 각각 진행하였다.

영어영문학과 전공능력 강화 특강



영어영문학과는 대학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영어영문학과 전공능력 강화 특강』을 실시하였다. 6월 23일에는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환학생 준비 특강'을 가졌으며, 6월 27일부터 7월 14일까지는 '영어회화 특강'을 진행하였다. 또 6월 28일부터 7월 28일까지는 '토익 특강'을, 7월 5일에는 '토플 특강'을 진행하였다.

◆ 독어독문학과

졸업생 선배가 들려주는 독일 유학 생활 설명회 개최



독어독문학과에서는 3월 2일 <졸업생 선배가 들려주는 독일 유학 생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독일 교환학생 프로그램 및 석·박사 학위 취득 등 독일 유학 생활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현지에서 체득한 독일 생활 전반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고, 질의응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부·복수전공·편입생 오리엔테이션 개최



독어독문학과는 3월 11일 <부·복수전공·편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학과 선배가 들려주는 학교생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부·복수전공·편입생 뿐만 아니라 학과 신입생·재학생을

대상으로 전공수업 및 학과활동 관련 안내사항을 전달하고, 교환학생 프로그램, 학과 동아리, 현장실습 프로그램, 지역사회기여센터 주관 멘토-멘티 프로그램 등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재학생들과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유의미한 시간을 가졌다.

대동제 축제 부스 참여



독어독문학과는 5월 17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부산대학교 대동제 <드디어, 대동하다> 체험 및 홍보부스에 참가하였다. 독어독문학과 학생회가 주축이 되어 전공생을 비롯하여 대동제 기간 부스를 이용한 방문객으로 하여금 아이싱 쿠키·비즈 팔찌 만들기 체험, 독일 문양·문구 타투 스티커 배포, 자체 제작한 독일 풍선 증정, 독일 전통의상을 입고 독일 배경의 포토존 참여 등 독일의 축제 및 지역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전공 관련 활동 및 독일의 전통 문화를 널리 알리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국립대학 육성사업 학술강좌 <휴과 불의 향연> 개최



독어독문학과는 6월 17일 국립대학 육성사업 학술강좌의 일환으로 <휴과 불의 향연>을 개최하였다. 초청연사로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3호 김영길 사기장을 초빙하였으며, 무형문화재로서 도자 제작에 임해 온 사기장의 인생관과 예술관을 진솔하게 전달하였다. 또한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600여 년 이상 된 귀한 유물들을 청중이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등 참여자 모두에게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였다.

◆ 노어노문학과

2022 Outreach 진로·취업 설명회



5월 13일 인문관 215호에서 21학번, 22학번 재학생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향후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유익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 한문학과

2022년 신입생환영회

2020년부터 코로나로 진행되지 않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신입생환영회(2022.04.22.금)를 드디어 대면으로 개최하였다. 예림서원, 오연정, 월영정, 금시당, 영남루, 아랑각 등 밀양 일대의 문화 유적지를 답사하고 저녁에는 신입생환영회 행사를 진행하였다. 행사를 마치고 선배와 후배, 그리고 교수님들과 함께 학교생활, 진로, 교우관계 등 수업 시간에 다하지 못했던 간담회의 시간을 가졌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문학과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단합을 다지는 소중한 자리였다.



제24회 효원성년제

작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해 해의 끝자락인 11월에 진행해오던 것을 3년 만에 대동제를 여는 행사의 하나로 참석자의 가족들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의식을 치르는 모습을 개방하는 등 전면 대면으로 개최하였다. 다만 감염병 추세를 지켜보다 4월에 신청접수를 마감한 관계로 성년제 현장에는 선착순 40명의 학생들만이 참석하여 전통성년의식을 치렀고 한국음악학과 학생들의 공연이 더해져 전통관례식의 멋과 흥을 돋우었다.

· 일시 및 장소 | 2022.05.17.(화) 16:30 ~, 운죽정 2층



2022-1 한문학과 석사학위청구논문 예비발표회



2022.05.11.(금) 인문관 412호에서 한문학과 박사 학위청구논문 예비 발표회를 대면으로 개최하였다. 교수님과 시간강사 및 대학원생 20여 명이 참여하여 그 어느 때 보다 열띤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

2022년 한문학과 전공특강 제1탄 교직원



대학혁신사업 전공특화형 비교과 프로그램(동아시아 고전·지역학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전공 특강 제1탄 '한문교사'편을 진행하였다. 임용고시를 거쳐 현재 한문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선배(허하영, 김해 삼방교 교사)를 초청하여 임용준비 방법, 교사의 즐거움과 어려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 일시 및 장소 | 2022.07.28.(목) 10:00 ~, 인문대교수연구동 212호

◇ 언어정보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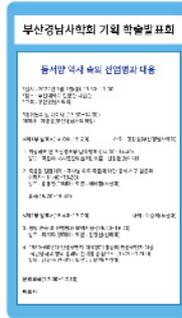
2022학년도 언어정보학과 신규대면식 개최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간 송정에서 2022학년도 언어정보학과 신규대면식이 개최되었다. 언어정보학과 신입생 포함 재학생들이 모두 함께하는 2년만의 대면행사로 학생 및 교수님까지 총 61명이 참여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만날 수 없었던 동기 및 선후배와 오랜만에 함께하여 다양한 학과 정보를 공유하며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친목을 도모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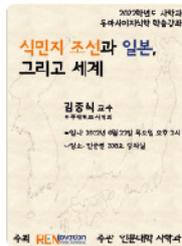
◇ 사학과

부산대학교 사학과-부산경남사학회 기획 학술발표회 공동 개최



7월 1일 인문관 501호에서 부산대학교 사학과와 부산경남사학회가 <동서양역사 속의 전염병과 대응>이라는 테마로 기획 학술발표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흑사병, 홍콩 인플루엔자 등의 전염병에 대한 동서양의 방역정책, 담론 등에 대한 평가와 한계를 논의하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과거 동서양에서 전염병을 어떻게 대응했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논의하는 등 시의성을 갖췄다.

국립대학육성사업 인문대학 동아시아지식학 학술강좌 - 식민지 조선과 일본, 그리고 세계



6월 23일 국립대학육성사업 동아시아지식학 학술강좌의 일환으로 아주대학교 사학과 김종식 교수를 초빙하였다. 강좌에서는 피통치층의 동향, 식민지의 통치 기구, 식민지와 본국 및 중앙의 정치권력과의 관계, 본국의 정치체제, 국제정세라는 다섯 가지 관점에서 식민지 정치권력의 이해를 도모하였다. 특히 이를 현대 미국과 한국의 정치 상황, 그 중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제' 논쟁을 일본의 천황제 및 조선총독의 권한과 연결 지어 논의하는 흥미로운 부분도 엿보였다.

사학과 학위청구논문 중간발표회 개최



3월 11일 인문관 412호에서 사학과 학위청구논문 중간발표회가 대면과 비대면으로 동시 진행되었다. 발표자는 석사수료생 3명(김혜리, 안세빈, 조연진) 총 3명이였다. 발표 논문의 주제는 「조선후기 기장현감의 재임 실태와 특성」, 「고구려 초기 유리왕의 왕계 검토」, 「임진왜란기 민중의 군도화와 반란」으로 한국 고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들이 발표되어, 대학원생과 여러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 철학과

2022학년도 철학과 저명학자 초청 특강 개최

4월 21일에 아트부산 변원경 대표를 초청하여 "현대 예술의 경향 - 미술작품 소장과 아트페어"라는 주제로 저명학자 초청 특강이 개최되었다. 중세박람회, 근대박람회의 역사 속에서 근대자본주의와 함께 발전된 아트페어가 유명 작가가 아닌 신진 작가를 발굴하여, 작가의 정보를 공유하고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작가 감성과 대중과의 직접적 만남을 매개하고 예술을 향유하는, 현대예술에서의 미학적 주체의 확장을 일구어왔음을 살펴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강연이었다.



2022년 <새벽의 사람> 발간 지원



2022년 학부생 문집 『새벽의 사람』 지원 사업은 시즌별 학술·편집부원 모집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학술 발간물 필진으로 참여함으로써, 더욱 생생한 『새벽의 사람』 웹진, 문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현재 2022 새벽의 사람 웹진 사이트(<https://dawn2022.creatorlink.net>)

에 발간된 「5월의 새벽」에서는 1학년 학생들부터 고학년 선배들의 철학적 사색, 시대비평 등으로 다양한 글들이 공유되었고, 특히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5월 전남대 민주세미나에 비대면으로 참여한 철학과 학생들의 발제문 모음도 게시되어 타대 학술교류를 기록하고 공유할 공간이 마련되었다.

2022년 하계 철학과 대학원 학술세미나 지원 사업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학술 세미나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름 방학 동안 대학원생 중심으로 구성된 학술 스터디 및 세미나 모임을 지원하고 있다. 7월 20일 “후설읽기” 스터디 모임에서 후설의 <현상학의 이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8월 2일 “신체성연구” 세미나 모임에서는 상탈 자케의 <몸>을 중심으로 한 신체성에 대한 철학적 고찰이 이뤄졌다. 이처럼 여름방학 동안 철학과 대학원 내 다양한 학술 연구모임을 통해 대학원 내 연구 분위기를 고양시키고, 대학원생의 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고고학과

저명학자 초청 단기 집중 특강 개최

고고학과에서는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학문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기 위해 우수한 국내외 저명학자를 모시고 저명학자 초청 단기 집중 특강을 개최하였다. 4월 15일에는 과승기(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교수를 초청하여 <고고과학으로서의 유기잔존물 분석: 성과와 과제> 특강을, 5월 11일에는 이종철(전북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사를 초청하여 <길의 고고학> 특강을, 5월 18일에는 무라카미 야스유키(에히메대학 아시아 고대 산업 고고학 연구센터) 교수를 초청하여 <동아시아 철기의 기원과 전개 -서아시아에서 동아시아로-> 특강을 각각 진행하였다.



2022년 한국고고학회-국립문화재연구원 공동 주최 여름 발굴 캠프



한국고고학회와 국립문화재연구원은 공동으로 고고학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여름 발굴 캠프를 개최하였다. 이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여름 발굴

캠프'로 미래 고고학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고고학과 학부생 4명은 3주(6.21 ~ 7.8)간 '경주 쪽샘', '서울 풍납토성' '김해 봉황동' 유적 조사에 각각 참가하여 이론교육, 전문교육, 실습교육을 이수하였다.

하계방학기간 중 현장실습

고고학과에서는 하계방학기간 중 여러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진행하였다. 이번 하계방학기간에는 경북문화재단 문화재연구원의 상주 함창 오봉산 고분군 발굴조사 현장에서 2명, (재)가야문화연구원 창녕 중부내륙고속도로 대합휴게소 등 조성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현장에서 1명, (재)삼한문화재연구원의 울산 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현장에서 3명, (재)현대문화재연구원의 창원 복면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현장에서 2명, 한국문화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의 발굴 조사 현장에 2명,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의 함안 성산산성 발굴조사 현장에서 2명,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경주 황룡사지 서편 미조사지역 발굴현장에서 1명 등 고고학과 학부생 13명이 실습을 진행하여 현장 실무경험을 쌓았다.



◆ 인문학연구소

인문학연구소 교류와 열린특강 3강

말소리 변이와 언어인지 - I talk like 개떡, you get it like 잘떡	2022년 7월 6일(수) 16:30~18:00	인문대교수연구동 209호
---	-------------------------------	------------------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국제공동학술대회

PNU냉전문화연구팀-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공동주최

한국전쟁의 트랜스내셔널한 기억	2022년 5월 27일(금) 09:00~18:00	인덕관 대회의실
---------------------	--------------------------------	----------

인문학연구소 2022년 국내학술대회

한국비평이론학회 창립 30주년 기념학술대회 “<2022년, 비평/이론의 미래를 묻는다”	2022년 5월 21일(토) 12:30	인문관 501호
말, 언어, 의사소통의 융합과 통섭: 말소리와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2022년 5월 26일(목) 14:00~17:30	인문대교수연구동 209호
중국 서사 연구의 새로운 모색 - 텍스트에서 콘텐트까지	2022년 7월 2일(토) 09:00	인문관 501호, 408호, 409호



◆ 점필재연구소

<2022년 점필재인문고전 아카데미> 행사 개최



일시	장소	행사명
2022.04.28. ~2022.07.21.	에림서원	점필재 김종직 선생의 한시와 산문작품, 그 감상과 이해(1강~12강)

제2회 한국계몽주의특강 <근대문학 제도와 계몽>



일시	장소	행사명
2022.06.16.	밀양캠퍼스 나노생명과학 도서관	제2회 한국 계몽주의 특강 <근대문학 제도와 계몽>(김영민)

◆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2년 세대·아름 인문체험 <맛있는 구포국수! 우리 함께 만들어요!>



부산광역시 북구청과 부산대학교가 공동 주관하는 인문도시지원사업의 행사로 우리 지역의 중요한 인문적 자산이자 대표적 먹거리인 구포국수를 통해 세대를 잇고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대상으로 구포국수 체험 행사를 진행하였다.

- 행사일 | 2022. 5. 21.(토)
- 장소 | 구포국수체험관
- 대상 | 북구 거주 초등학생
- 주최 | 한국연구재단
- 주관 | 부산광역시 북구청,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후원 |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2022 부산 북구 인문도시지원사업 UCC공모전



북구(마을)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하여 중, 고등학생 UCC공모전을 진행하였다. 대상으로 작품명 “구포시장, 오고 싶지 않아요?(팀명: 강해상입니다/가람중

학교)”가 선정되었으며, 시상식은 2022년 6월 16일 화명도서관에서 진행되었다. 해당 UCC는 향후 인문도시지원사업의 다양한 콘텐츠로 사용될 예정이다.

- 공모일 | 2022. 4. 25.(월)~2022. 5. 31.(화)
- 주최 | 한국연구재단
- 주관 | 부산광역시 북구청,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후원 |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2022년 세대·아름 인문체험 답사 <토박이와 함께하는 북구 찾기>



북구의 전통적인 공간이자 번성했던 시절의 상징이었던 북구의 전통공간을 찾고, 토박이의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북구 시민들을 대상으로 북구 일대를 답사하였다.

- 행사일 | 2022. 5. 28(토)
- 장소 | 북구 일대
- 주최 | 한국연구재단
- 주관 | 부산광역시 북구청,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후원 |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신간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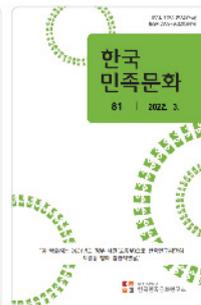


『업서가 된 임진왜란』
김동철 / 선인 / 2022

이 책은 근대 이후 특히 20세기 전반에 일본과 조선에서 발행된 사진엽서나 그림엽서에 담긴 16세기 말에 일어난 임진왜란의 모습을 살펴 보려고 한 시도다. 책 제목처럼 이 책에서 사용한 기본 사료는 근대 엽서다. 일본인이 발행한 이 엽서를 ‘에하가키(はがき·えはがき·エハガキ)’라고 부른다. 최근 ‘에하가키’를 자료로 하는 연구가 늘어나면서, 연구자에 따라 그림엽서, 사진엽서, 사진그림엽서 등으로 번역되거나, 사진에 하가키(寫眞繪葉書)로 쓰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림으로 된 것도 있고, 사진으로 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림엽서/사진엽서 어느 쪽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양쪽을 포괄하는 ‘사진그림엽서’가 좀 더 정확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편의에 따라 사용하였으며, 줄여서 그냥 엽서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책에서 쓰는 ‘엽서’라는 용어는 근대에 발행된 사진·그림이 담긴 엽서를 뜻한다.



코기도
97호 발간
2022.06



한국민족문화
81집 발간
2022. 03



로컬리티 인문학
27호 발간
2022. 04